

우리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_이주여성인권포럼 지음\_오월의봄

# 사라지는 혼혈인

박경태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 차별의 시작

나는 기지촌과 혼혈인에 관한 실태조사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혼혈인들을 알게 되었다. 영화를 찍고 실태조사를 하면서 때로는 가족처럼 가깝게 때로는 상담하듯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어왔다. 관계를 맺는 것은 혼혈인들이 살아온 삶의 고통과 기억을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첫 시작은 외관상 한국인 남성인 내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 사회의 다른 일상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한 예로, 흑인계 혼혈 여성 김순자와 시장을 다녀보면, 그녀의 유창한 한국어에 “어머!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세요?”라고 누군가 묻곤 한다. 그럴 때 김순자는 “혼혈인”이라 답하곤 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호기심이 “한국에 와서 일하니 힘들지 않는지”, “한국말을 잘해줘서 고맙다”로 엉뚱하게 발전될 시점, 김순자는 “가수 인순이 과(분류)예요”라고 재치 있게 부연해서 대답을 한다. 그제야 사람들은 마치 잊고 지낸 친구를 다시 본 듯 웃음을 지으며 사라진다. 그러면 어디선가 “야~ 깜둥이 튀기”라는 속삭이는 소리가 지나간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상황은 식당 종업원이 포크를 가져다주거나, 거리에서 만난 학생들이 웃으며 영어로 인사를 하고, 지하철에서 노인들의 고압적인 눈초리를 받으며 다양하게 변주되어 하루를 채워간다. 웃지만 스쳐도 사건이 되는 이 분주한 일상의 단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늘 확인받고 확인해줘야 하는 고된 노동에 가까워 보였다. 이곳에서 혼혈인으로 살려면 참을성이 남달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남의 시선을 피해 숨어살거나 술에 의존하거나 심각한 싸움을 즐기고 형무소를 들락날락하는 신세가 된다. 혼혈인들은 태어나자 동시에 해외 이주에 대한 가부(可否)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한국 사회를 떠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라 여겨졌다. 현재는 극소수만이 한국에 생존해 사회적, 문화적 소수자에 이어 인구학적 소수자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혼혈인들은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비정상적으로 분리되어왔다. 그들은 해방과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미군을 위한 성매매 공간인 ‘기지촌’이란 지역에서 탄생한 사람들이다. 물론 혼혈인 탄생에는 다양한 배경<sup>1</sup>이 있지만, 기지촌과 성매매는 혼혈인 차별과 출생의 직접적인 사회적 배경이다. 그러다보니 ‘혼혈’이란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다. 그들을 호명하는 말에서부터 차별을 지시하는 기호가 되었다. 외관상 다른 피부색은 미군에게 몸을 판 증거로 간주되었고 부계혈통에서 벗어나 순혈주의를 더럽히는 존재로 각인되어왔다. 단지 순혈의 반대말인 ‘혼혈’이란 이름은 현재까지 적절한 대안 없이 그렇게 부르는 실정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들을 혼혈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품위 있는 말로 통해왔다. 그렇지 않으면 튀기, 잡종, 아이노꾸, 양갈보자식 등 그들을 폄훼하는 말<sup>2</sup>만 있는 상황에서 혼혈인들은 일상에서 폭력적으로 배제되었다.

그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노력은 정부 정책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한국전쟁 직후 정부는 혼혈인들을 미국으로 입양 보내기 위해 모든 정책적 초점을 맞춰왔다. 혼혈인에 대한 이러한 인종 분리 정책은 1954년 ‘모든 혼혈아들은 아버지의 나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연두교시에서 시작되었다. 반면 입양이나 이민을 원치 않는 혼혈인들은 가족관계등록부부터 힘들었고 정부도 그 수<sup>3</sup>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대체로 미등록 상태로 살거나 어머니의 동생이나 조카로, 즉 외할아버지나 삼촌 밑에 들어가는 편법을 통해 합법적(?) 한국인이 되어야 했다. 정부의 일관된 분리 정책은 입양 이민을 가기 위한 편의 제공으로 발전했다. 혼혈 남성의 경우 ‘외관상 명백하고’,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란 항목에 의거 군 면제 혜택을 주는데, 표면적인 이유와는 달리 이것은 해외이민 시 병역의무에 관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적십자사 직업훈련<sup>4</sup>의 경우도 독일로 간 광부나 간호사처럼 해외 취업을 통한 미국 이민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해당 국가인 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시행 2년 만에 흐지부지된 프로젝트였다. 이처럼 정부는 한국 사회에서 혼혈인을 분리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sup>5</sup> 갈피를 못 잡던 혼혈인 분리 정책은 미국에서 혼혈인 이민에 관한 특별법(Amerasian act, 1982)이 제정되면서 재정보증만 있으면 다른 한국인들에 비해 손쉽게 미국으로 이민 갈 수 있었다. 이후 정부는 혼혈인들을 더 이상 사회문제로 치부하지 않았다. 1984년 이후 보건통계 불우아동<sup>6</sup> 항목에서 사라지고 병역면제만 유효하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2010년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는 병역의무가 부가된다).

결국 혼혈인의 대거 이주 후 한국 사회에서 그들은 잊힌 존재가 되었다. 한국전쟁 직후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던 혼혈인들, 1960~70년대 영화나 문학작품에서 단골 소재가 되었던 그들의 존재는 이제 그들의 파란만장한 삶이 미디어에 간혹 소개될 뿐 일상에서 마주치기란 어려워졌다. 적어도 정부의 해외 이주 정책은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이제는 혼혈인을 만나려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필자가 그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실태조사에 참여하면서 가능했다.

## 만나기 힘든 혼혈인

혼혈인을 처음 만난 건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기지촌 혼혈인 인권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기지촌 현장 단체 ‘두레방’에서 기획한 이 실태조사의 첫 번째 일은 혼혈인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했다. 사실 두레방은 혼혈 아동을 위한 놀이방 프로젝트를 시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혼혈인과 구체적인 관계망이 없었다. 연구원들은 우선 전국에 흩어져 있던 기지촌을 탐방하면서

혼혈인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일은 매우 힘들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에게 혼혈인들은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설령 만났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다른 혼혈인들로 연결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관계 맺기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프로젝트 기간은 1 년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양적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모집단 산정에 따른 조사 대상자를 채우기 급급했고, 예상과 달리 기지촌에 혼혈인들이 극소수에 불과하여 표본집단 설정 자체가 무의미한 실정이었다. 즉 찾기도 힘들었지만 문을 열고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관계 맺기 과정 없이 시작한 실태조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을 만났을 때도 문제가 있었다. 연구원들은 이 조사가 인권 상담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에 한정된 작업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연구원들의 일은 그들의 삶과 무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무리하게 설득과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례를 범했다. 혼혈인들은 인권조사라는 말보다 곧바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부터 확인하고자 했다. 그동안 정부의 실태조사에 신물이 나 있었고 혼혈인들을 돕겠다고 나타난 사람들, 복지단체들은 말로만 돕겠다고 했을 뿐 항상 자신들을 이용해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혼혈 아동 사진을 찍어 미국에 후원을 받는 어떤 단체가 사실과는 다르게 혼혈인들을 비참하게 표현했다거나, 들어오는 후원금도 자신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에서마저 ‘저주받은 피와 같은 수식어’로 자신들을 부정적인 존재로만 보게 한다며 외부 단체나 언론을 불신하고 있었다.

2003 년에 실시한 실태조사는 정부에서 처음으로 인권이란 차원에서 접근한 조사였다. 조사는 50 여 명의 혼혈인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기지촌 지역과 아닌 지역에서 만난 혼혈인은 100 여 명에 가까웠고 파악된 수는 450 여 명이었으나 면접과 설문지 작성에 응해준 사람들은 50 명에 불과했다. 그때만 해도 하인즈워드 등 혼혈인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 전이었고 혼혈인 자치단체인 ‘국제가족 한국총연합’(회장 배기철)이 활동을 준비하는 단계였기에 만남의 범위는 한계가 있었다. 10 년이 지난 현재 배기철 회장이 파악한 한국에 거주하는 혼혈인들은 334 명(직접 연결된)이며 실제 숫자는 1,000 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연결 가능했던 혼혈인들이 거의 100 여 명이나 사라졌다는 점이다. 나와 가깝게 지내던 혼혈인들도 10 년 사이 5 명이나 사망했다. 대체로 알코올중독에 따른 영양실조가 직접적인 원인이고 질병과 살인 사건도 한 명씩 있었다. 혼혈인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10 년 전 실태조사를 시작하면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졌다. 과거에 그 많던 혼혈인들은 어디로 갔고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다. 그리고 정부의 분리 정책, 비혼혈 한국인들의 혼혈인에 관한 적대적인 태도와 차별, 폭력을 변수로 꼽았다. 혼혈인들의 심리적인 문제와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살 문제는 특히 혼혈인이 한국 사회에서

사라지는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면접에 응한 혼혈인 중 42.2%가 자살 시도 경험이 있고 자살 충동 또한 57.8%에 달했다. 혼혈인의 자살은 일상적인 문제였다. 실태조사를 하는 도중에도 평택에서 2 명의 자살 사건이 있었다. 육교에 목을 매달아 죽은 그는 마치 한국인들에게 무언의 항의를 한 것처럼 보였다.

기지촌에서 만난 여성들의 증언 또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대부분이었다. 거리를 떠돌던 혼혈 아이들 중 상당수가 겨울 동안 얼어서 죽었다고 한다. 이렇게 미등록 상태의 아이들은 때로는 기지촌 여성들의 도움으로 연명해가기도 했지만 운이 없으면 굶어죽거나 얼어 죽기 일쑤였다. 모두 전쟁 직후 또는 1960~70 년대 이야기지만 혼혈인의 죽음에 관한 문제만큼은 아직까지도 현재형이었다. 지금 대부분의 혼혈인들은 알코올중독이 심하고 마약이나 폭력 문제로 전과자가 되어 또 다른 차원에서 소외와 소멸의 위협을 안고 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간단하게 차별과 폭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기지촌의 낙인과

### 혼혈인이라는 명칭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 문제 설정이 피부에 와 닿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실태조사의 제목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배기철을 비롯한 많은 50 대 이상 혼혈인들이 ‘기지촌 혼혈인 인권 실태조사’란 제목을 보고는 자신과 기지촌을 연관시킨 것에 큰 불쾌감을 표현했다. 수차례 항의 전화가 왔다. 자신은 양갈보의 자식이 아니며, 미군에 의한 성폭력에 의해 부득이하게 태어났으며 순결했던 어머니를 기지촌 여성으로 매도했다며 항의했다. 혼혈인들은 기지촌과는 관계가 없는데도 기지촌 출신이라고 차별을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인 나는 직접 찾아다니며 다시금 기지촌에 관한 설명과 제목에 대한 이해를 구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에게 ‘기지촌’은 커다란 상처였고 잊고 싶은 공간이었다. 나 자신도 매우 실망했다. 최초로 인권이란 관점에서 혼혈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했다는 자부심과 그간의 노력은 제목으로 인해 사라지는 듯했고 항의하는 혼혈인들과 대면하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내용을 읽어보라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대부분 차별로 인해 초등학교를 중퇴한 그들에게 실태보고서의 생경한 문제제기와 통계 도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내용은 제목을 앞서 나가지 못했다. 혼혈인들 입장에서는 ‘기지촌 혼혈인 인권 실태조사’란 제목을 통해 그 실태조사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이 기지촌 출신, 성매매의 자녀들로 공식화되었다고 했다. 미숙했거나 아니면 혼혈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가 만났던 혼혈인들 대부분은 기지촌에서 출생했거나 그곳이 삶의 터전이었다. 어머니가 미군과 동거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 거리에 버려져 고아원에서 성장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앞에서 언급한 김순자의 경우도 ‘잠에서 깨어나 보니 고아원이었다’로 자신의 생애 이야기를 시작하며 기지촌 유입과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다. 이 모순적 차이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져준다. 문제는 바로 ‘기지촌’이란 단어다.

이게(기지촌 혼혈인 실태조사) 잘못된 게 뭐냐 하면, 1945 년도에  
해방되면서 미군들이 출현하기 시작했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친구들은 사실 기지촌 여성 이런 게 아니라고. 사실 미군이  
한국전쟁 도와주러 온 거지, 윤락 뭐 이런 게 아니거든..... 우리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런데 전쟁 때 미군이 총칼 들이대는데  
어찌겠어.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거고,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났다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그래도 공산주의가 안 된 게  
누구 덕분이야? 미군들 덕분 아니냐고.

— 김국남, 백인계 혼혈인

기지촌과 혼혈인을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 평생 혼혈인들은 ‘양갈보자식’이라는 차별과 놀림을 받아왔다. 혼혈인들 앞에 기지촌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분명 혼혈인들의 상처와 낙인을 환기시키는 일임에 틀림없다. 결국 오랜 낙인(stigma) 효과는 재현 불가능한 집단의 장으로 이끈다. 그것은 ‘기지촌’과 ‘혼혈인’ 명칭에서 은밀하게 소통되어온 불편한 정서적 역사를 갖는 데서 출발했다.

남영호는 2008 년 연구<sup>8</sup>에서 인터뷰 대상자들이 ‘기지촌 혼혈인’<sup>9</sup>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주둔지 혼혈인’으로 불러달라는 요구를 지적하며 받아들인다. ‘기지촌’에 대한 오명을 통해 생물학적, 젠더적 차별을 밝힌 점은 피부색의 차이와 단일민족주의만 강조해왔던 혼혈인 문제 틀을 넘어선 새로운 발견이다. 하지만 그 명칭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주둔지’는 사전적으로 군사기지가 주둔한 땅을 뜻하는 말로 ‘주둔지 미군’은 몰라도 ‘주둔지 혼혈인’은 그 연결고리가 어긋나 보인다.

여성가족부 실태조사<sup>10</sup>에서도 수식어로 ‘미군 관련 혼혈인’을 새겨 넣는다. 다문화가족 혼혈에 따른 혼동을 막기 위해서 사용한 이 용어 또한 기지촌 혼혈인에 관한 문제제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성공회대 박경태 교수는 2008 년 연구에서 혼혈인을 사회적 소수자로 다시 보기를 시도하며 아버지의 부재와 순혈주의의 관계를 파헤치며 호명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대담자 혼혈인들이 ‘기지촌 혼혈인’ 실태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소개<sup>11</sup>하며 사랑해서 한 동거나 결혼을 통해 태어난 혼혈인도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주둔지 혼혈인’이나 ‘미군 관련 혼혈인’은 ‘기지촌’이 함의하고 있는 성매매, 양갈보, 양색시 등의 불편한 기억을 제거하고 혼혈인의 입장에서 이름을 붙인 배려 깊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이와 같은 친밀함에 따른 차이를 통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것은 1950~60년대 시대상과 기지촌 성매매 시스템<sup>12</sup>에 대한 오해이거나 혼혈인들의 기억 만들기 전략으로 보인다.

국내 성매매 집결지와 달리 동거형 성매매가 발달했던 기지촌은 미군과의 ‘결혼’ 성공 여부에 따라 정상과 비정상의 위치를 달리했다. 1950~60년대는 전쟁 기간 중 인신매매되어 온 여성들 외에도 직업소개소를 거쳐 타이피스트나 미군 세탁공장 노동자로 취직된 사례가 많았다. 특히 세탁공장은 많은 인력의 여성 노동자를 필요로 했고 미군부대 직업소개소는 기지촌 여성 유입의 주요한 경로가 되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가난한 여성들은 지역유지였던 포주를 통해 미군을 소개받고 자연스럽게 미군과 동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기지촌은 이렇게 포주들의 사업을 기반으로 옷가게, 오피스, 사진관, 가구점 등 도시 자영업 형태의 마을 모습을 띠어갔다.

미군 당국은 1975년 사단법인 한미친선회<sup>13</sup>를 창립하고 기지촌 포주들과 관계망을 단독히 해나갔다. 그렇게 한국인이 미군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한미친선회를 통해서만 가능했고, 그 시스템이 기지촌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군과의 결혼 실패는 ‘양갈보’란 낙인이 찍히는 계기가 됐다. 유일한 탈출구는 결혼해서 미국에 가는 것이었다. 반복되는 동거생활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방과 가구를 빌려주던 자칭 포주들이었다. 이마저 실패하면 여성들은 빚을 갚고 먹고살기 위해 클럽에 나가거나 홀하우스(whore house)를 전전했고 나이 들면 히빠리 신세로 전락했다.<sup>14</sup> 기지촌은 이렇게 미군의 정서적 편안함과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 집창촌에서 볼 수 있는 홀하우스까지 다양한 시스템이 병존했다. 항상 기지촌은 은밀한 낙인 속에서 주변화, 비가시화되고 말해서는 안 될 하나의 비밀로 존재해왔던 것이다.

‘주둔지 혼혈인’과 ‘미군 관련 혼혈인’이라는 용어는 기지촌 출신의 어머니를 향한 낙인의 무게 중심을 부재하는 미군 아버지로 이동시켜 기지촌의 흔적을 부수적이거나 희미한 존재로 만든다. ‘기지촌 출신도 있었지만’으로 시작하는 이 논의는 미군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혼혈인 명칭을 재배치한다. 결국 혼혈인을 배려해야 하는 연구자는 가급적이면 ‘주둔지 혼혈인’과 ‘미군 관련 혼혈인’이라는 명칭으로 합의하며 기지촌의 낙인을 피해간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혼혈인의 어머니들은 미군과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미군 가족이 되거나 양갈보라 불리며 정상과 비정상으로 재탄생된다.

나는 실태조사 제목에 대한 사건을 겪은 후 그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른다. 그러면 혼혈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불리길 원하는 명칭으로 부르면 좋은 것인가? 그 명칭 안에는 혼혈인 스스로

체현한 낙인의 함정은 없는 것인가? 이즈음에서 기지촌과 혼혈인에 대한 낙인의 무게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기지촌 여성과 혼혈인들을 주변화시키고 재현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었던 사회적 낙인을 환기하면서 말이다. 과거 신문 기사에서 그 낙인 과정의 기억 단편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 혼혈인,

### 낙인의 흔적

1945년 10월 20일 서울 진고개 입구 미군정 환영 연무장에서 한 여성이 미군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관중들의 야유와 폭설을 받았다. 환영식은 중단되었다. 비슷한 시기 거리에 미군과 함께 걷어가는 여성이 보이면 아이들까지 나서서 침과 욕설을 내뿜었으며<sup>15</sup>, 신문사설에서도 “북조선에서 온 청년에 의하면... 민족의 피를 보존키 위하여 운동을 일으켜 만일 후일에 혼혈아가 생기면 그 아해는 물론 모체까지 말살하리라 한다는 바... 그 정신이야말로 참으로 장하다 할 것이며 본받을 것 아닌가?”(《대동신문》, 1946년 2월 17일)라고 했으며, 한국전쟁 시기에는 “민족의 정조 지켜 전과에 보답하자”(《부산일보》, 1950년 11월 3일)는 등의 많은 사설과 기사들이 양공주의 등장과 혼혈인의 탄생을 개탄해 마지않고 있다. 당시 담요부대라 칭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전쟁터에서 담요를 깔고 연합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고 연합군의 성폭력 또한 비밀비재했다. 피임과 낙태수술이 힘들었던 시절 혼혈인들은 부모 없이 고아로 탄생하게 되었고 전쟁으로 가족을 잃거나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은 기지촌이 전국에 형성되자 그곳으로 내몰렸다. 미혼모들이 급증하고 혼혈아를 유기하는 사건도 비밀비재했다. 그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이 상당했는데, 그 단면은 미군정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혼혈 아동 유기는 한국전쟁 직후 급속도로 증가한다. 1955년 9월 5일 《동아일보》 사설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혼혈아가 평균 5명 내외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한국일보》 1954년 8월 9일 기사에서는 버려진 혼혈아가 500여 명에 이른다며 시급히 입양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혼혈아 소위 튀기로는 검둥이가 두 명, 흰둥이가 〇〇명 있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매독성 유전병으로 오래 살게 될지 의문입니다. 도대체

어머니 되는 여자는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사람인지 난지 불과 며칠

되지 않은 아이를 길가에 내버리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여성은 우리 여성에 대해서도 최대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적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쟁의 광기가 지나가고 피폐한 삶이 일상의 공포로 등장할 무렵, 공공의 적이었던 기지촌 여성과 혼혈인에 대해 희생자 담론이 부여된다. 먹고살기 위해 미군 주둔 지역에 상이군인, 부랑자, 깡패, 전쟁 난민, 전쟁고아 등이 모여들었고 꿀꿀이죽과 미제 PX 물건<sup>16</sup>이 인기를 끌었다. 소위 양색시를 통해 미군 부대와 접촉하고 먹을거리를 구걸해 먹으며 PX 물건을 내다팔아 돈을 벌 수 있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기 북부 한적한 시골마을 전역에 기지촌이 형태를 잡기 시작하면서 성매매 시스템과 달러벌이가 활발해졌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기지촌 여성의 몸을 통제하면서 부를 축적했다. 한국 정부도 치외법권 지역이었던 기지촌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박정희는 1969년 닉슨독트린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기지촌정화사업을 기획하고 본격적인 성병 통제와 함께 ‘달러벌이의 애국자’로 그녀들을 부르기 시작했다.<sup>17</sup> 한편에서는 여전히 양갈보 또는 양갈보자식으로 멸시함과 동시에 달러벌이의 역군으로 부르는 이 사회적 모순 상태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기지촌 성매매의 공모자로 굳어졌다. 이것은 기지촌 성매매와 인종차별을 은폐시키고 일상에서 차별을 정당화하며 비도덕적인 달러벌이에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발휘했다. 이와 같은 폭력의 단면은 특히 혼혈인 해외 이주 정책에서 잘 드러난다. 혼혈인 해외입양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다. 1955년 9월 11일 《경향신문》 기사 ‘까다롭고 복잡한 이민수속 내막, 대부분이 양공주 군상’에서 이민 사무를 취급하는 외무부 103호실의 풍경을 묘사했는데, 1년 동안 불과 100명밖에 미국 이민을 취급해주지 않는 규정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957년에 《경향신문》 2월 1일 기사에서는 ‘혼혈아 75명 도미’, 10월 31일 기사에는 ‘혼혈아 80명 첫 이민’ 등 1957년 미국고아이민법 시행에 따라 혼혈 입양이 확대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혼혈 아동들이 이민 갈 때마다 《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빠지지 않고 추적 보도하며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이민법도 일관된 것은 아니었다. 1959년 6월 미국고아이민법이 만료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서 1,000여 명의 혼혈아를 긴급 입양시키기로 한 결정(《경향신문》 1958년 11월 12일)이나 나아가 별도의 방침을 세워 미국이민법 이후에도 전원 입양시키기로 한다는 점 등 당시 한국 정부는 혼혈인 해외 이주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것은 명백한 정부의 인종분리 정책이었지만 불행한 혼혈아에게 자선을 베푸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기지촌과 혼혈인을 향한 시선과 기억은 이처럼 신문과 정부의 정책에 잘 드러나 있다. 하지만 차별의 느낌과 정도는 그들의 몸과 기억 속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다. 차별과 배제가 낳은 문제점에 더해서 그것의 경험과 기억을 드러내는 것은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될 것이다. 나의 관계 맺기의 목적은 이렇게 시작되었음을 설명하면서 한

혼혈인의 생애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혼혈인의 삶과 경험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2003년 실태조사에서 처음 만난 백인계 혼혈인 박명수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같이 만들기로 약속했다. 솔직한 그의 화법과 유머감각, 거친 행동이 내 이목을 끌었고 다큐멘터리 영화 주인공으로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박명수 외 두 명의 혼혈인과 함께 2005년 다큐멘터리 《있다》를 제작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가 완성된 이후 박명수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사실이 되었고 나는 그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

## 혼혈인 박명수, 외롭고 희망 없는 삶

2009년 10월 27일 백인계 혼혈인 박명수가 사망했다. 작은 쪽방에서 술에 취해 숨진 그를 이웃 사람들이 뒤늦게 발견했다. 프랑스 유학 중이던 나는 박명수와 전화 연락이 끊어진 것을 걱정하다 2011년 10월에 찾아가서 그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개발을 위한 철거를 앞둔 북아현동의 한 쪽방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옆집 슈퍼 주인은 외상술이 남아 있음을 투덜거리며 대신 갚아줄 것인지 내 눈치를 살폈고 이웃 사람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었다. 3년 전을 되짚어보면, 나는 프랑스로 떠나기 전 그에게 북아현동 재개발로 세입자 보상이 이뤄지면 작은 중고 트럭을 장만해서 폐휴지를 수집하거나 임대 아파트를 신청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헤어짐에 대한 미안함을 굳은 약속으로 대신하고 홀가분하게 떠났다. 그리고 5개월 뒤, 박명수는 부검 결과 알코올중독에 따른 영양부족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전에 외로움과 고통, 희망이 없는 삶을 이미 저주하고 포기했다. 나와 박명수의 만남은 2003년 실태조사에서 시작되었다. 실태조사가 끝나고 2003년부터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기 위해 거의 매일 붙어 다니면서 형 동생으로 부르는 사이가 되었다. 그는 혼자 살고 있었다. 한 평 남짓한 연희동 고시원 쪽방에서 박명수의 생애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했다.

박명수는 1959년 과주 법원리에서 태어났다. 미군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고 어머니는 박경자로 해방 후 일본에서 건너왔다. 어머니의 자세한 인생 이야기는 본인도 잘 몰랐다. 어머니는 외가 쪽 친척에 대해 단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한국인 남성과 같이 살았는데, 미군부대 청소용역일을 하면서 작은 고아원을 운영했다. 원아들은 대개 전쟁고아 출신들로 의붓아버지의 미군부대 일에 동원할 목적이었다. 그때만 해도 박명수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미군 장교가 그를 귀엽게 여겨 매번 학용품과 옷을 사줬고 미국에 양자<sup>18</sup>로 데려가기를 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어머니는 입양을 반대했다. 아마도 의붓아버지가 미군부대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박명수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혼혈아를 앞세워 가면 미군들은 다른 한국인들보다 손쉽게 일거리를 주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도 오래가지 못했다. 1969년 닉슨독트린 여파로 1971년에 경기 북부에 대규모 주한미군 병력재배치가 이루어졌다. 2만 명의 미군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철수하면서 경기 북부 운천, 연천, 포천, 과주의 기지촌은 유명마을로 변했다(《주간조선》, 1970년 10월 25일). 박명수 가족은 이 거대한 국제정세 변화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의붓아버지의 사업은 하루아침에 망했고 어머니의 행상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날이 갈수록 의붓아버지의 마약중독이 심해졌고 어머니의 알코올 의존증 또한 심해졌다. 어머니는 매달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혼혈인 지원금을 받아서 옷을 떼어다 팔거나 생선을 팔기도 했다. 하지만 화려했던 생활을 하다가 시장 생활을 하려니 쉽지 않았다. 행상을 나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술에 취해 박명수를 모질게 때리곤 했다.

먹을 거라고 미군이 먹다버린 음식쓰레기로 만든 꿀꿀이죽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박명수에겐 귀한 음식이었다. 결국 의붓아버지의 마약중독과 어머니의 술주정으로 가족은 해체되고 어머니는 강화도 기지촌에서 상이군인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박명수는 술에 취한 어머니를 대신해서 상이군인과 함께 섬을 돌아다니며 앵벌이를 했다. 술 없이는 구걸할 수 없었다. 어린 나이에 술을 배우는데다 어머니의 학대가 괴로워 가출을 한 후 의붓아버지를 찾아 용산 기지촌에 있는 그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했다. 열심히 일하면 의붓아버지 밑으로 호적을 넣어준다는 말을 믿고 1년을 넘게 살았다. 그때까지 호적이 없었던 박명수는 의붓아버지에게 의존했지만 다른 식구들, 특히 의붓아버지의 어머니가 튀기는 절대 안 된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갈 곳 없던 박명수는 용산의 녀마주이 집단에 들어가 살았다. 그렇게 18세가 될 때까지 거리의 아이로 성장했다. 초등학교는 잠시 다녔지만 학교에서 싸운 기억밖에 없었다. 구두담이를 하던 무렵 우연히 동료 혼혈인을 만나 필벽재단, 한미재단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직업교육도 시켜주고 해외입양을 알선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성장한 박명수를 입양할 가정은 없었다. 게다가 이른 나이에 술을 배운 박명수는 가는 곳마다 사고를 쳤다. 받아주는 사람은 녀마주이들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악몽을 꾸고 나서 어머니를 만나러 강화도로 향했다. 어머니는 그가 오기 며칠 전에 이미 알코올중독과 영양실조로 사망한 뒤였다. 그날 이후 박명수는 자주 어머니 꿈을 꿴다고 한다. 꿈에서 보는 어머니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다. ‘아직도 그러고 사느냐’며 박명수가 화를 내는 꿈이다. 이후 박명수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상처로 자리했다. 어머니와 관계를 악연으로

소개하면서 나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어머니의 기억에 대해 묻는 날이면 어김없이 화를 냈고 술을 마셨다. 단지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 대한 분위기만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거칠 것 없이 살던 박명수는 페인트 기술과 철거 기술을 익히게 되고 1982년 미국이민법 개정 덕에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미국 이민 길에 오른다. 미국 이민이 어렵던 시절, 혼혈인들은 미국 이민을 가려던 사람들에게 좋은 이용 수단이었다. 처음부터 위장결혼으로 이민을 가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박명수의 경우에는 진짜 사랑인 줄 알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다. 그러나 부인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곧 박명수를 떠났고 박명수는 그녀를 찾아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녔다. 한국에서 배운 페인트 칠 기술 덕에 먹고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꾀으로 갔다는 소문을 접하고 박명수는 꾀에 정착했다.

꾀에는 베트남 전쟁 이후 난민 신분으로 정착한 한국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해외 생활을 했던 한국인들이라서 그런지 차별은 없었다. 한국인들의 소개로 평소보다 벌이는 더 좋았다. 마침 당시 꾀은 일본 기업이 관광지 개발을 위해 진출했던 터라 건설경기가 좋았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였다. 미국에서 LA 폭동이 발생하면서 LA에 살던 한국인들이 대거 꾀으로 몰려들었다. 경쟁은 치열해졌고 혼혈인인 박명수가 제일 먼저 밀려났다. 하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번에 걸리면 세 번째로 실형을 앞두고 있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잠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놀러왔게 되었다. 그때가 1997년. 한국은 IMF 시절이었다. 박명수는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을 마셨다. 철거 및 페인트 기술은 좋았지만 바닥 건설경기는 예전과 달랐다. 대부분 철거는 기업형 건설회사가 독점했기 때문에 박명수에게까지 일거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동네 인테리어 사무실이나 인력사무소도 박명수를 잘 끼워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3년 나와 박명수는 실태조사 상담을 통해 만나게 되었고 건설 현장에서 밀린 임금과 미지급한 치료비를 받기 위해 노동부에 제소를 도와주면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친구도 없는 외톨이 신세이던 그는 나를 친동생 대하듯 편하게 대했다. 알코올 의존증이 심했던 박명수를 위해 병원도 찾아다녔지만 그때만 해도 연고가 없던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돈이 없어 고시원에서조차 쫓겨나기를 반복했다. 주거가 일정치 않아 쉼터를 알아보았으나 혼혈인을 안내하는 곳은 주로 이주노동자 쉼터였다. 하지만 박명수는 그곳에 절대 섞이려 하지 않았다. 다문화센터나 이주노동자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어 그들과는 절대 말도 섞으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은 한국인인데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가끔 일용직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오해받아 인건비를 절반만 받은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그곳을 소개한 내게 불같이 화를 냈다. 본의 아니게 도와주려 했지만 오히려 상처만 자극했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이야기한다며 타박도 많이 받았다.

박명수와 한 다큐멘터리 작업은 그와 관계 맺는 과정이었다. 본의 아니게 나 또한 심한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다. 박명수를 도와주려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한국 사회에서 혼혈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되었다. 박명수의 자살충동과 나에 대한 의존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다. 매일 걸려오는 전화는 상당한 고통이었다. 전화 내용은 대부분 죽고 싶다는 것이었다. 희망이 없는 삶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반복되었다. 언제부턴가 촬영을 가는 날이면 벌써부터 헤어질 방법부터 궁리했다. 매번 나더러 '또 어디 도망가려고 그러느냐'며 타박하기 일쑤였다. 자신은 항상 나에게 진실한 모습만 보여줬는데, 나는 항상 거짓으로 대한다는 것이었다. 진실한 관계란 내가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었다. 그것이 박명수의 희망이었다. 나는 늘 그의 솔직한 화법에 당황하곤 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영화 연출을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술에 취해 당장 만나러 오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했다. 나는 평정심을 잃고 그와 크게 다투었다. 쪽방으로 찾아갔을 때 그는 충격을 받고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이 과정을 나는 냉정하게 카메라에 담았다. 그리고 이 자살충동에 대한 사건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다.

엄마에 대한 기억? 그게 좋은 역사야? 좋은 기억이야(화를 내며)? 왜?  
왜? 우리 엄마에 대해서 알아? 왜 알고 싶어? 그렇게... 뭐 때문에? 어?  
얘기를 해... 알고 싶은 거. 나에 대해 엄마에 대해 왜 알고 싶냐고?

<이렇게 된 게 엄마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많이 힘들었어? 이게 많이 힘든 거야? 이게 많이 힘든 거냐고? 인생  
조진 거지...

<어머니한테 어떤 영향을 받으셨기에...>

영향? 이건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비극이야, 비극... 진짜... 영향이란  
것은 어느 정도 있을 때 있는 건데 이건 비극이라니까...

— TAPE 04, 2004 년 9 월 20 일

비록 영화는 두 군데에서 상영된 후 잊혀졌지만 시사회가 끝난 뒤 박명수는 전보다 상태가 좋아졌다. 술도 끊고 새 출발을 하려는 각오를 내비쳤다. 원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난 뒤 비쳐지는 만족감을 보며 나도 기분이 몹시 좋았다. 북아현동 재개발이 결정되고 보상금을 받으면 장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재개발 과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공사장 일거리는 여전히 찾기 힘들었다. 나도 전처럼 자주 찾아가지 못했다.

박명수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기초생활수급으로 나오는 돈은 매달 술값으로 소진되었다. 나와 관계 맺기 과정은 영화 만들기의 과정이기도 했지만, 심리치료의 과정이라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내 생각은 큰 착각이었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 없이 나와 그 사이의 차이만을 깨달았다. 박명수의 삶은 변함이 없었고 그렇게 일상은 반복되고 있었다.

## 스스로 사라지는

### 혼혈인

일상에서 차별과 폭력, 정부의 분리 정책으로 혼혈인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어디선가 분명히 그들은 숨어살고 있었다. 이제는 남아 있는 그들은 박명수처럼 외로움과 상처로 인해 스스로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알코올중독과 범죄 그리고 자살 등은 혼혈인이 처한 현재의 문제이다. 더 이상 양갈보자식이거나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친 언사는 일상에서 찾기 힘든 일이 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차별과 고통이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되돌아와 혼혈인들을 심리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이것을 피하는 길은 눈에 띄지 않게 다문화 가정 틈바구니 속에 섞여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한국인들도 보조를 맞춰 다문화 담론 속에서 과거 미군을 아버지로 둔 혼혈인을 잊고 자신과 무관했던 사람들로 기억을 고쳐버린 상태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성장하고 한국말만 사용하는 그들에게 다문화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타자(Other)로 취급하는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그들에게 가져본 적 없는 다문화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적 차별의 시작인 셈이다. 그것은 자신이 탄생하게 된 배경인 한국전쟁의 비극적인 역사마저 지우고 다문화 속으로 구겨 넣는, 존재의 이유마저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다. 혼혈인의 역사성을 지우고 다문화가족이란 담론 안에 그들을 녹여내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라는 수사를 빌린 또 다른 다수의 횡포이자 인종차별을 교묘하게 변형한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될 경우 혼혈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과거에만 벌어졌던 사건이 된다.

지금 얼마 남지도 않은 혼혈인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존재했던 이유와 그 존재 자체도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혼혈인에 가한 인종차별의 역사가 ‘사라지는 혼혈인’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사회적 낙인은 치유되지 못하고, 그들의 상흔 난 기억은 여전히 그들만의 몫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 주

1. 김동심 외,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7~15 쪽, 2003.

2. 잡종은 동물의 이종교배를 빗대서 부른 말이며 아이노꾸 또는 아이노코(合いの子)는 일본어에서 온 말로 튀기와 같은 뜻이다. 양갈보자식의 경우 해방 직후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들의 호칭에서 비롯된 말로 종래에는 유엔레이디(UN Lady)에서 양공주, 양색시, 양갈보 등 다양하게 변주되었다.
3. 혼혈인 정부 집계 보고는 박경태 성공회대, 《미국거주 한국계 혼혈인 실태보고》(재외동포재단 연구용역보고서, 2007)에서 해외입양아 6,139 명에서 최대 7,398 명 등 참조. 김동심 외,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41 쪽, 2003.
4. 1970 년 10 월 9 일 《조선일보》의 〈혼혈아 이민 추진〉, 보사부, 병역면제 기술교육 시켜에 의하면, 보사부는 혼혈아들에게 해외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및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5. 김동심 외, 앞의 글 25 쪽.
6. 김동심 외, 앞의 글 6~7 쪽.
7. 혼혈인들이 자주 지적하는 언론의 대표적인 문제 기사 중 하나는 《한겨레 21》의 〈다른 피... 그것은 저주였다〉(2001 년 5 월 31 일, 제 360 호)이다.
8. 남영호, 〈주둔지 혼혈인과 생물학적 시민권〉, 《한국문화인류학》, 제 41, 91~128 쪽, 2008.
9. 남영호, 앞의 글 92 쪽.
10. 박경태 외, 〈미군 관련 혼혈인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 정책 방안〉, 여성가족부, 2006.
11.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 사회》, 후마니타스, 217 쪽, 2008.
12. “나는 마이켈과 연애를 했고 나를 미칠 듯이 좋아하는 다크를 받아들였고, 또 그들이 사라진 뒤 외로움을 못 이겨 프랑크를 내 방으로 들어오게 했다. ‘아아 그것이 모두 매춘행위였는지 뭐구나.’ 옹주굴만이 아니라 소위 세상에서 양공주 양갈보로 불리우는 모든 여자들은 자신들이 매춘부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계에 뛰어든다. (...) 극소수의 여자는 미군과 정식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가기도 하지만 그것은 특수한 예이다. 이러한 대부분의 여자들은 미군들의 ‘사랑이란 미명’에 현혹되어 생활비를 받고 몸을 파는 것이다. 집주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포주가 아니라고 한다. 실제 그들은 여자들에게 집을 빌려주고 밥을 팔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격히 따질 때 ‘포주’에 틀림없다. 침대, 테이블, 심지어는 이불까지 일체를 빌려주는 것이다. 옷이 헤어지면 옷가지도 외상으로 맡아준다. 이를테면 미군과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여건을 빠짐없이 갖추어 주는 것이다. 이것이 포주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애니박, 《내 별은 어느 하늘에》, 영지출판사, 1965.
13. 김현선, 〈기지촌매매춘과 여성인권〉, 2001 여성평화아카데미 불강좌 자료집, 1 쪽, 200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아카이브, <http://archives.kdemo.or.kr/View?pRegNo=00734996&QU=한미친선회>, 참조할 것.
14. 기지촌 성매매 시스템은 크게 클럽과 자체집으로 나뉜다. 클럽에서는 주스를 팔고 춤을 추는 무대가 있으며 1962 년 이후 특수관광업협회로 등록이 가능해 면세 혜택을 받았다. 자체집은 클럽 성매매 시스템과는 독립적인 형태로 월세 집 형태를 띤다. 홀하우스는 숫타입만 목적으로 한 형태이고 히빠리는 포주에 속하지 않고 거리에서 미군을 직접 상대하는 여성을 뜻한다.
15. 서울신문, 《주한미군 30 년》, 향림출판사, 1979.
16. PX 경제에 대해서는 김형윤, 〈우리 누이의 때 묻은 담요 위에선 환락의 도시〉, 《뿌리깊은나무》, 82 쪽, 1980 을 참조할 것.

17.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 과정에서 기지촌 여성의 몸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캐서린 문, 《동맹 속의 섹스》, 삼인, 2002 를 참조할 것.

18. 혼혈인들은 정부 집계와 달리 기지촌에서 미군이 비공식적으로 양자 입양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때로는 버려진 갓난아기를 데리고 돌아가는 일도 많았다. 따라서 혼혈인 입양에 관한 보사부의 집계는 홀트나 펄벅재단 등 일부 시설에 수용된 혼혈인에 한정된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의 혼혈인들은 비공식적으로 사라져갔다. 그들의 수를 헤아리기 힘든 이유이다.